

[서평]

에드워드 코프만의 『정규군: 미국의 군대, 1898-1941』과 브라이언 린의 『전투의 메아리: 미 육군의 전쟁방식』

Edward Coffman, *The Regulars: The American Army, 1898-1941* & Brian McAllister Linn, *The Echo of Battle: The Army's Way of War*
: 20세기 초 미 육군사 연구의 최근 시각들

설인호

(한국국방연구원)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대규모 정규군의 건설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군사동원체제의 수립을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 사회, 문화, 군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반 군사 전통(the Anti-Military Tradition)’은 독립 이전 식민시기부터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100여 년 이상 지속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다.¹⁾ 여기서 ‘반 군사 전통(Anti Military Tradition)’이란 군국주의(militarism)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Anti-militarism’과는 다르며 미주 대륙 내에서의 팽창이나 인디언에 대한 공격에서 나타나는 호전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이는 주로 호전성의 수단인

1) 설인호, “20세기 이전 미국의 군사전통: 반 군사전통의 형성과 전개,” 『미국학』, 제 35집, 1호 (2012), pp. 149-189.

‘군대의 구성방식’과 ‘동원체제의 수립’에 관한 미국인의 특수한 정서를 일컫는 것으로 소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군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기록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1890년대 말 매킨리 행정부의 등장과 ‘미서 전쟁(Spanish-American War)’의 결과로 19세기적 ‘농경 공화국의 고립주의(the isolation of the agricultural republic)’에서 벗어나 해외 정치, 군사 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다수의 식민지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제국(an empire true to the name)’으로 거듭나게 되었다.²⁾ 이러한 변화는 미서 전쟁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제국주의와 적극적 대외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과 해외로의 팽창을 주장해온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결과였다. 이들은 또 식민지의 관리와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지속을 위해 육군의 확대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³⁾ 미 육군의 근대 개혁은 ‘신해밀턴주의자’⁴⁾라 불릴만한 이러한 정치세력들의 후원과, 개혁을 지향해 온 장교단의 노력이 결합하여 비로소 결실을 보기 시작한다.⁵⁾

2) 설인호, 2012(미국학), p. 149.

3) T.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공화당 상원의원 롯지(Henry C. Lodge)에게 보낸 서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국가들 중 가장 뛰어난 국가들은 국가 스스로의 의지, 국가 자신의 국가로서의 권리와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가장 성실히 행하는 국가들입니다... 어떤 국가도 그 권한을 군사력으로 보장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러한 위치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Ronald J. Barr, *Neo-Hamiltonian Republican And Military Reform in the Progressive Era: 1898-1912*, Louisian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3, p. 16에서 재인용.

4) ‘신해밀턴주의자(Neo-Hamiltonian)’란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19세기 후반 미국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하며 해외 팽창의 필요성과 육군 개혁을 주장한 일련의 정치인 집단을 일컫는 것이다. 이들은 ‘신해밀턴주의자’로 명명한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흡사 건국 초기 적극적 대외정책을 표방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입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5).

5) 육군의 개혁은 순수하게 장교단 내의 토의와 논쟁의 소산이기 보다는 민간 정치인

개혁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좌절 되었던 육군 개혁⁶⁾은 전쟁과 군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개혁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대립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던 새 전쟁성 장관 루트(Elihu Root)의 기용에 의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⁷⁾ 그러나 루트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제도적 개혁들은 1903년 이후 ‘정체와 후퇴’의 시기를 겪게 된다. 19세기 후반 동안의 기록적인 국력신장과 미서 전쟁 이후 식민지 관리 등 새로운 군사적 필요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반 군사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⁸⁾ 20세기 초 미 육군의 근대 개혁은 미국의 1차 세계 대전 참전 전야(前夜)인 19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일정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미 육군사 연구에서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을 19세기 후반 이후 변화된 미국의 위상과 미국 내에 형성되어 있던 전통과의 충돌 및 이의 극복과정으로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⁹⁾ 미 육군사 연구는 전통적으로 개혁의 주체를 남북전쟁 이후 개혁사상을 발전시키고 소수의 인적 집단을 형성하여 정규군의 전문성 증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개혁 장교 집단’으로 보아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 육군사 연구는 개혁의 시작 시점을 1870년대로 보며, 개혁의 내용 및 범위도 정규군과 관련된 조직, 규모, 부대편성, 전술 교범의 발전 등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제도 개혁을 포함한 육군 개혁 전반의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미국 군대의 실질적 구성요

들의 작업의 결과였다. Huntington, 1985, pp. 252-253.

- 6) 19세기 후반 남북 전쟁 참전 장교단을 중심으로 일련의 육군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교육제도에서의 일부 개선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반 군사 전통’이 여전히 굳건히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7) 설인효,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개혁의 시작, 루트 개혁기(1899-1903)를 중심으로”, 『미국학 논집』, 2012(겨울). 이에 따라 미 육군사기들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의 제도적 변혁기간을 ‘루트 개혁기(Root Reform Period)’라 지칭하고 있다.
- 8) 설인효,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개혁 정체 및 후퇴기(1904-1909),” 『군사(軍史)』 제86호, (2013).
- 9) 설인효, 2012(박사학위논문), p. 10.

소인 ‘주방위군(National Guard)’¹⁰이나 ‘지원군(Volunteer)’의 발전 등 전체적인 육군 개혁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미 육군사의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조차 근래에 많이 산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밀레(Allan Millett)와 마슬로브스키는 1994년 저서에서 ‘한 때 각광받던 주제인 ‘혁신주의 시대(Progressivism) 시대’, 또는 ‘제국적 팽창기(imperial expansion)’의 육군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관점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 시기의 육군 개혁에 대한 중요한 저작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바 있으며¹¹ 2000년 대 초까지도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주요 작품은 산출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2004년에 간행된 에드워드 코프만(Edward Coffman)의 『정규군: 미국의 군대, 1898-1941』¹²과 2007년 간행된 브라이언 린(Brian Linn)의 『전투의 메아리: 미 육군의 전쟁방식』¹³은 해당 시기 미 육군사를 상세히 다룬 비교적 최근의 저작들일 뿐 아니라, 정규군 중심에 간혀 있던 기존 시각을 수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10) 주방위군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 방위 조직인 ‘민병대(militia, or citizen militia)’가 근대적 형태로 발전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 민병조직이 오늘날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란 명칭을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한 것은 대략 1800년대부터이다. 최초로 주방위군이란 명칭을 사용한 민병대는 뉴욕주 민병대(New York State’s militia)로 일종의 명예로운 부대명칭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 “National Guard”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시기의 국민군 조직을 의미하는 프랑스 어 “Grande Nationale”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National Guard에 대한 역어는 국방부의 관례에 따라 ‘주방위군’으로 하였는데 이는 영어 자체에 나타난 것보다 ‘National Guard’의 실제 사정을 잘 드러내는 점이 있다. 설인호, 2012(미국학), pp. 151-152.

11) Allan Millett and Peter Maslovski, *For the Common Defense: A Mili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pp. 343-345.

12) Edward M. Coffman, *The Regulars: The American Army, 1898-1941*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3) Brian M. Linn, *The Echo of Battle: The Army’s Way of W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먼저 한국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 육군사 연구의 기본적 흐름을 먼저 간략히 개관한 후 두 저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저서가 미 육군사 연구에서 갖는 위상과 의미, 그리고 여전히 지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미 육군사 일반을 다룬 최초의 저서는 가누(William A. Ganoe)의 『미 육군의 역사(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이다.¹⁴⁾ 가누 역시 1870년대 이전의 시기를 ‘육군의 암흑기(Army’s Dark Ages)’라 지칭하며 19세기 후반 이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육군 부흥기(Renaissance)’를 두 시기로 나누며 그 첫 시기를 1881 업튼(Emory Upton)과 셔먼(William T. Sherman)이 포트 리벤워스(Fort Leavenworth)에 보병과 기병을 위한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교단을 양성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다.

가누는 ‘루트 개혁기’에 현역으로 복무했던 장교로서 군 개혁을 철저하게 정규군 장교단 중심으로 기술한다. 그는 1880년대 육군 개혁 역시 장교단 스스로의 문제 인식과 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2단계인 1899년 이후의 개혁에서도 전쟁성 장관 루트 등의 정치적 노력보다, 1870년대 이후 정규군 개혁 장교들을 이끌어 온 업튼의 개혁사상이나 카터(William H. Carter), 코빈(Henry C. Corbin) 등 개혁 장교들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¹⁵⁾

1937년 두 번째 미 육군 일반사 저서가 마찬가지로 루트 시기에 복무했던 장교인 스폴딩(Oliver S. Spaulding)에 의해 출간된다.¹⁶⁾ 스폴딩도 가누와 유사하게 미 육군의 개혁은 18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

14) William A. Ganoe,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New York: Appleton, 1924).

15) 예컨대 가누는 '1903년 민병대 법' 통과 시 루트의 활동과 영향력을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육군 대학(the Army War College) 수립의 경우에서도 루트의 역할이나 T.루즈벨트의 지원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Ganoe, 1924, pp. 397-418.

16) Oliver L. Spaulding, *The United States Army in War and Peace* (New York: Putnam, 1937).

는 1890년대가 되면 육군은 이미 잘 교육되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상태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육군은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스폴딩은 이 점에서 가누와 달리 1899년 이후 루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¹⁷⁾ 기업 변호사 출신인 루트는 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지만 육군에게 필요했던 효율적인 조직의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스폴딩 역시 군 개혁기 전체를 정규군 장교단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가누와 스폴딩을 잇는 미 육군 일반사 저술은 1967년이 되어서야 위글리(Russell F. Weigley)에 의해 발표된다.¹⁸⁾ 위글리는 미 육군 일반사를 다룬 군 출신이 아닌 최초의 전문 역사가였다. 따라서 그의 저술은 개혁의 주체나 육군사와 정치, 사회사의 관계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위글리 역시 19세기 후반 이후 육군의 개혁을 과거와의 단절 및 근대적 육군의 출발점으로 평가한 점에서 이전 두 저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또 루트 개혁이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의 육군에 기초를 건설한 것으로 평가한다.¹⁹⁾ 나아가 위글리는 미 육군사의 전개를 미국의 현실적 필요와 반 군사 전통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분석한다.²⁰⁾ 다만 위글리 역시 개혁의 주체를 정규군 장교단으로 잡고 개혁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부각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미 육군사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1970년대의 주요 논쟁인 ‘개혁의 동기’에 대한 논쟁에서도 잘 드러난다. 카스텐(Peter Carsten)은 1972년 자신의 해군 장교단에 대한 연구 성과를 육군에 적용하여 당시 육군 장교단의 정치, 사회적 여건과 개혁 활동의 동기를 분석한 연구를 내놓았

17) Spaulding, 1937, p. 395.

18) Russell F. Weigle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초판은 1967년도 출간임.

19) Weigley, 1984, p. 322.

20) Ibid., p. 1.

다.21) 이 논문에서 그는 남북전쟁 이후 18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규군 장교단이 겪었던 극심한 진급 정체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육군 개혁의 동기를 만성적 진급 정체의 해소를 위해 정규군의 규모와 임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젊은 장교단(Young Turks)’의 활동에서 찾고자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에브라함슨(James L. Abrahamson)은 광범위한 범위의 육군 개혁을 단순한 개인적 이해관계로 환원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 비판하며, 육군 개혁집단 내에서 세기말 증대되고 있던,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여 군의 전반적인 상황과 효율성, 규모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일관되게 존재했음을 보이고자 했다. 에브라함슨은 카스텐의 주장이 개혁집단 내의 중요한 ‘한 세력’을 식별해 냄으로써 개혁 집단 내의 ‘수평적 분열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나, 개혁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한 ‘수직적 일관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22) 그러나 카스텐이나 에브라함슨 모두 개혁 추진의 동기를 정규군 장교단 내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 개혁을 둘러싼 총체적 함의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23)

21) Peter Karsten, “Armed Progressives: The Military Reorganizes for the American Century,” in *Building the Organizational Society: Essays on Associational Activities in Modern America*, ed. Jerry Israel (New York: Free Press, 1972), pp. 197-232. 이 연구는 그의 해군 관련 저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Peter Karsten, *The Naval Aristocracy: The Golden Age of Annapolis and The Emergence of Modern American Nav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22) James L. Abrahamson, *America Arms for a New Century: The Making of a Great Military Power* (New York: Free, Press, 1981).

23) 이 외에 이 시기에 대한 육군사 내의 주요 논쟁으로는 개혁의 시작 시점에 대한 스킴튼(William Skelton)과 그랜드스타프(Mark Grandstaff)사이의 논쟁이 있다. William B. Skelton, *An American Profession of Arms: The Army Officer Corps, 1784-1861* (Lawrence, Kan.: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2); Mark Grandstaff, “Preserving The “Habits and Usages of War”: William Tecumseh Sherman, Professional Reform, and the U.S. Army Officers Corps, 1865-1881, Revisite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2 (Jul, 1998), pp. 521-545.

코프만의 2004년 저서 『정규군: 미국의 군대, 1898-1941』은 미 육군사에 관한 저서 중 전례가 없었을 정도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²⁴⁾ 특히 이 저서는 코프만의 1986년 저서 『과거의 육군: 평시 미 육군의 초상, 1784-1898』²⁵⁾에 대한 15년 만의 후속 작이기도 하다. 코프만의 『정규군: 미국의 군대, 1898-1941』는 전작과 함께 미 육군의 ‘사회사’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즉 코프만은 두 저서에서 육군의 공식적인 제도나 업적만이 아니라 장교단과 병사들의 일상, 그들 가족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 ‘군사사 연구소(Military History Institute)’, ‘미 육사 문서보관소(Archives Division of the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등의 방대한 역사 문헌들을 다양하게 인용하며 해당 시기 육군사를 기술하고 있다.

코프만이 2004년 저서에서 주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미 육군의 근대 개혁과정이다. 이 저서는 기본적으로 미 육군사 학계에서 정설로 수립된 입장을 잘 대변해 주며 그러한 점에서 기존 미 육군사 연구의 기본적 관점들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²⁶⁾ 미국의 육군은 루트 개혁기를 통해 국경지대에 소규모로 고립되고 산재되어 있던 ‘국경수비군(frontier constabulary)’에서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해외 원정군(expeditionary force)’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의 핵심적인 관점은 이러한 육군의 변화가 당시 미국이 경험했던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육군 측의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 사회는 사회 조직 일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조직 혁명(organizational revolution)’을 경험하고 있었다.

24) Cole C. Kingseed, “Book Rivew: The Regulars: The American Army 1899-1941 By Edward M. Coffman,” *Parameters*, Winter 2004-05 (US Army War College, 2004), p. 135.

25) Edward M. Coffman, *The Old Army: The Portrait of the American Army in Peacetime, 1784-18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6) Edward M. Coffman, 2004, p. 415.

미서 전쟁(Spanish American War) 후 미 육군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조직으로 판명되며 사회 전반으로부터의 비난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 변화의 혹독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프만은 이러한 육군의 변화를 전반적인 일반사적 변화와 연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개혁의 주체는 ‘정규군 장교단’이며 분석 영역은 지엽적인 ‘육군 정규군’이다. 즉 그는 미 육군이 맞이 했던 도전과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정규군 장교단’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이 시기를 다루면서 제목을 『정규군: 미국의 군대, 1898-1941』로 한 것에서도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는 육군의 ‘관리 혁명(managerial revolution)’, ‘경영 방식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총참모부 수립에 관한 루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T.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이나 루트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을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린의 2007년 저서 『전투의 메아리: 미 육군의 전쟁방식』는 그 부제를 미 육군사의 기념비적 저작이라 할 위글리의 또 다른 저서 『미국의 전쟁 방식: 미국 군사전략의 역사』²⁷⁾에서 따온 것이다. 즉 린은 위글리가 시도했던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독특성에 대한 분석을 육군 차원에서 더욱 세밀하게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기본적인 관점은 미 육군사를 관통하는 세가지 ‘군사사상적 입장(philosophical schools)’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들이 상호 경쟁하며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러한 입장들이 단순히 ‘전투(battle) 수행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육군의 전쟁(war) 방식’ 전체를 결정했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저서

27) Russel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는 전쟁사 혹은 전투사가 아니며 미 육군의 ‘지성사’ 및 ‘제도사’에 가깝다.

린이 말하는 군사철학적 입장이란 다음과 같다. 즉 미 육군 내에는 본토방위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 주로 급변하는 군 관련 기술을 수용하려는 ‘수호자(Gardians)’ 그룹, 미국의 전통적 입장으로서는 전쟁에서 인적 요소를 강조하는 ‘영웅(Heroes)’ 그룹, 효율적 조직 건설이 산업화된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 ‘관리자(Managers)’ 그룹의 서로 다른 세 시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 세 그룹은 ‘중대한 전투에서의 경험(the echo of battle)’에 비추어 자신들의 시각에 입각한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군 건설과 군사력 운영에 적용하고자 했다. 미서 전쟁 이전까지 안보 관련 미국의 주요 관심은 ‘1812년 전쟁’의 경험에 비추어 유럽 국가에 의한 바다를 통한 침략과 이를 막기 위한 해안 포대의 건설 및 유지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수호자’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편 ‘독립 전쟁’ 및 ‘인디언과의 전쟁’ 과정에서는 총기 보유, 개척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영웅’ 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 이전 시기는 ‘수호자’ 그룹과 ‘영웅’ 그룹이 서로 경쟁하며 주도했던 시기로 그려진다.

미서 전쟁을 통해 육군의 제도적 취약성이 백일(白日) 하에 드러나고 필리핀 점령 등을 통해 세계적인 강대국들과의 군사 경쟁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자 비로소 근대적 전쟁 수행에서 ‘조직’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²⁸⁾. ‘관리자’ 그룹은 전쟁의 물리적 차원과 정치적 맥락을 모두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현대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와 함께 ‘대규모 동원(mass mobilization)’, ‘전문성(professionalism)’²⁹⁾ 등이 동

28) 남북전쟁과 미서 전쟁은 기존의 군사에 관한 여러 가정들을 일시에 혼란에 빠뜨렸다. 기존에 군 운용을 주도하던 세력의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기 시작했다. Linn, 2007, p. 41.

29)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체계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 역시 조직과 정치적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미 육군 내에서는 장교단을 사회와 고립된 ‘귀족집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사관학교 이상의 군사 교육 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설인호, 2012(미국학).

시에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관리자’ 그룹에게 전쟁이란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제였다.³⁰⁾

세가지 군사철학적 시각의 교차라는 관점은 20세기 초의 군 개혁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해준다.³¹⁾ 그는 당시 군 개혁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19세기와 20세기의 미 육군에는 여전히 ‘사고의 연속성’이 존재했음을 주장한다. 즉 미서 전쟁 이후 ‘관리자’ 그룹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수호자’ 그룹과 ‘영웅’ 그룹의 영향력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시대의 필요를 인식한 ‘관리자’ 그룹은 ‘수호자’ 그룹과 ‘영웅’ 그룹을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극복하면서 육군의 변혁을 이끌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전통과 새로운 필요가 혼재한 가운데 이루어졌던 군 개혁의 역동성을 포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최근 클락(Jason Patrick Clark)의 2009년 연구³²⁾ 등에서 더욱 발전되고 있다. ‘개혁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클락은 개혁 추진 과정에 개입되었던 더욱 다양한 시각들을 포착하여 육군 개혁의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클락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 육군사 학계에서 이러한 시각이 제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³³⁾ 또한 여전히 미 육군의 발전을 정규군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도 완전히 탈피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클락의 연구 역시 정규군 중심의 관점에서 이 시기의 군사사를 기술한 나머지 루트나 우드(Leonard Wood)의 정치적 성과보다는 군사적 식견 부족이나 정규군 장교들과의 의견 불일치 및 마찰에 초점을 두고

30) Linn, 2007, p. 8.

31) 린의 저서는 식민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전기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육군 개혁은 이 저서의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다.

32) Jason Patrick Clark, *The Many Faces of Reform: Military Progressivism in the U. S. Army, 1866-1916*,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09.

33) Clark, 2009, pp. 1-13.

기술하고 있다. 클락은 우드의 등장과 부상으로 남북 전쟁 이후 정규군 장교단이 추진해온 개혁 노력이 최종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드는 총참모부 내의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하고 실질적인 군 개혁의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뒤에도 군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의 성과라 할 1916년 국가방위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³⁴⁾

20세기 초 개혁 시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역사 연구들도 마찬가지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루트 개혁기의 대표적 개혁인사의 한 사람인 카터에 관한 전기들은 정규군 장교단의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루트 개혁이 끝나는 1903년 이후는 군 개혁의 성과가 사실상 산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카터는 전쟁성 장관 루트 재임기 동안에는 개혁의 현실적인 성사를 위해 자신의 정규군 중심의 시각을 심분 양보한다. 그러나 루트 퇴임 후 점차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게 되면서 개혁의 중심 세력에서 이탈한다. 예컨대 카터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아닌 군의관 출신 우드와 많은 개혁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1910년대 이후 군 개혁의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된다. 카터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맥코이안은 카터의 행보를 따라 우드 등의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이 시기 이후의 군 개혁을 정체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육군사에 대한 전문 연구들은 20세기 초 육군 개혁을 혁신적인 변화이자 미 육군의 기본 틀을 형성한 중요한 시기로 보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으나, 대부분 정규군 장교단 위주의 기술과, 지엽적인 군사 사항들에 천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코프만과 린의 저서 역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34) Clark, 2009, Ch. 8. The End of Uptonian Military Progressivism: Leonard Wood and the External Forces, 1910-1916.

35) Machoian, 2002.

시기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 최근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과정은 단순히 군사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19세기 후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위상의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세계를 경영할 ‘제국 군대’를 건설했던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세기 동안 형성되어 있던 ‘미국 예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과 ‘반 군사 전통’을 극복하고 수정해야 했다. 즉 단순히 군 병력을 증원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국내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안과 밖’의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외교사적 사건이었다.